


아프리카의 마녀사냥(1)

나는 방송촬영차 해외촬영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공교롭게도 아프리카 관련 방송을 많이 하게 되었다. 아프리카를 다니다 보면 '이것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일까?' 라고 반문하게 되는 현장을 발견하곤 한다. 여성할레나 조혼 등 인간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에서 야기되는 끔찍한 관습들은 사람들을 고통속에서 신음하게 한다. 그중에서 가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취재한 마녀사냥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장유진

오늘날 마녀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단지 영화나 소설 속에 나올 법한 사건으로 마녀 사냥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한 두 명의 소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현상을 가리키기도 한다. 하지만 아프리카 일부지역에서는 아직도 마녀사냥이 일어나고 있다.

의신을 통해 가나 한 인권단에서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된 어린소녀를 구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나 신문기사에도 집안이나 마을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아무 죄가 없는 어린 여자 아이에게 '마녀'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 평생동안 가뉘는 악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혹시 그냥 흥미위주의 해외토픽은 아닌지 그냥 넘기려다가 사실 확인을 해보기로 하였다.

현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가나 북쪽 타말리 지역에는 마녀사냥이 몇백년 동안 내려온 마을전통이라 혼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지역 어느 마을인지, 누구를 통하여 그 사실을 취재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많은 걱정이 되었지만 취재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현지에 가기로 하였다.

가나의 마녀마을을 찾아서

일단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했기에 가나 정부가 지원하는 인권 관련 기관에 직접 찾아가 보았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취재를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아무래도 외국인의 취재에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현지 신문에 언급되었던 '인권과 정의(CHRAJ)'라는 단체를 찾아갔다. 그 곳에서는 마녀로 몰려 어딘가에 갇혀있는 패티언스 아힌(12)과 아비바(13)라는 어린 소녀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아힌의 경우, 지난 해 12월 이후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있다. 아힌은 학교를 마친 뒤 거리에서 빵을 팔아 할머니를 도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할머니는 아힌이 예전처럼 장사를 열심히 하지 않고, 돈이 자꾸 사라진다고 교사에게 불평해왔다. 아힌이 사라지기 전에 학교 선생님께서 들은 얘기는 놀라웠다. 어떤 남자가 할머니에게 '손녀가 마법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아이가 있는 한 마을은 번영하지 못한다.'고 말하더

아프리카에서 마녀란 노약자를 뜻하는 것 같다. 옛날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었듯이 아프리카에서도 비가 오지 않는 우기가 되면 식량이 많이 부족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노약자들은 마녀란 명목으로 그 마을에서 추방당하는 것이다.

란다. 나는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타말리 지역의 한 마을을 찾아갔다. 차로 비포장 도로를 16시간이나 달려할 만큼 먼 길이었다. 가나에는 한적한 도로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밤새 차를 타고 달릴 수 없었다. 그래서 가는 데만 이틀이 걸렸다. 문맹률이 높은 시골일수록 마녀사냥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타말리 지역에서 지난 5년 간 접수된 신고가 40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나는 인권단체 관계자와 함께 2년 전 사라진 아비바(13)라는 소녀를 찾아보기로 하였다.

아비바가 사는 마을에 도착하여 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물어봤지만 대부분 모른다는 대답이었다. 놀라웠던 건 마을 사람들의 태도였다. 어쩔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인권단체 직원인 윌리엄스는 마을 공동체가 마녀를 지목한다고 설명해 줬다. 그 사회 안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책임을 질 누군가(마녀)를 정한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마녀로 인해 집안이나 사업도 망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마녀사냥의 사례는 심각했지만, 일어나는 이유는 참으로 단순해 보였다.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 특히 나이 많은 여자들이며 가끔은 어린 여자애들도 대상이 된다. 마녀를 가려내는 과정을 통해 마녀임이 결정되면 공동체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 폭행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맞아서 죽기도 한다. 인권단체에서는 마녀사냥의 예방을 위해 사건들을 조사하고 경찰에 도움을 청한다. 마녀로 여겨지는 사람에게 하는 행위는 범죄이므로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하

며, 마녀임을 합법적으로 증명을 할 수 없다면 폭행을 가한 사람은 체포되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교육시키고 있었다.

사라진 마녀 피해자들

아비바를 찾는 것은 어려웠다. 인권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족들이 마녀라고 내보낸 아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다. 나는 마녀로 몰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일명 마녀마을)이 있다는 인권단체의 설명을 듣고 찾아가 보기로 했다. 일단 마녀라고 지목된 사람들은 흑누명을 벗게 돼도 다시 공동체 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나야만 했고, 이런 배경으로 생겨난 게 마녀마을이었던 것이다. 그래도 이곳에 오면 이웃들의 폭력이나 살해 위협으로부터 안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캠프에 사는 마녀라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혹은 귀신 같은) 존재가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존재가 사라져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마녀마을로 온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노약자들이었다. 나이 어린 소녀들도 가끔 오지만 캠프 내에 먹을 것이 변변치 못해서 이내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다고 한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신분인 이들은 근처 다른 마을사람들을 위해 바느질을 해주거나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식량을 받아 연명한다.



1. 마녀사냥 금지를 알리는 포스터 2. 마녀사냥의 피해자 대부분은 노약자들이다.

왜 마녀가 되어야만 하는가?

나는 아주 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정말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마녀로 지목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면서 만난 ‘마녀’라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안좋은 사람들이었다.

결국 그 곳에서의 마녀란 노약자를 뜻하는 것 같았다. 옛날 우리나라엔 겨울에서 봄 사이 식량이 부족했던 시기, 일명 보릿고개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도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먹을 게 많이 부족해졌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노약자들이 마녀란 명목으로 쫓겨났던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사람이 사람을 버린다는 사실에 마음이 많이 아팠다. 내가 살기 위해서 가족을, 그것도 부모나 어린 자식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일전에 여성할례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주술사는 마녀사냥에서도 그 비중이 크다. 마녀가 누군지 정하는 것이니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

이라 하겠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바로 마녀가 누군지를 정하는 것이다. 물론 가족이나 이웃의 부탁에 의해 마녀를 지정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일단 주술사가 마녀라고 지목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했다. 마녀에 해당 되는 사람을 추방 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아프리카 오지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하다. (다음호에 계속)



장유진 PD, (주)미코필름 대표, MBC해외시사 프로그램 W를 4년간 50여편 제작하였으며 ‘MBC스페셜’, EBS ‘다큐프라임’ 등을 제작하였다. 현재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이며 영상기획과 제작을 강의하고 있다.